

정치 변동과 정당 특성 분석을 통해 본 진진이탈리아(Forza Italia)의 성공 요인과 전망

정병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글은 이탈리아의 제도적 배경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적하여 진진이탈리아의 객관적 성공요인을 규명하는 한편, 진진이탈리아 지지층의 성격과 미디어 매개 효과 및 베를루스코니의 인물 효과를 분석하여 그 주관적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그 전망을 짚어보았다.

우선, 1970년대 후반 이후 세속화 과정에 따라 가톨릭-보수주의 하부정치문화 중 특히 가톨릭 문화가 해소되어 감으로써 비종교적 보수정당으로서 진진이탈리아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둘째,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거부감이 정당협오증으로 확산되어 신생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단순다수대표제의 도입이 인물중심 선거를 촉진하고 정당간 연립을 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국민들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의 강화가 베를루스코니의 인물적 상징조작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였으며, 지역 편중을 보이는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분포에서 진진이탈리아는 효과적인 연립정책을 구사하였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중도화 경향에 따라 중도-보수와 온건-좌파라는 새로운 하부정치문화 지형이 성립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케팅전략의 특성에 의해 진진이탈리아도 중도화 경향을 쫓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주제어: 진진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하부정치문화,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 미디어매개 인물정당

1. 서론

1990년대 이탈리아 정치는 지각변동이라 할 만한 격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헌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1990년도 중반 이후의 시기를 ‘제2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으며,¹⁾ ‘새 공화국’의 개혁 정치세력들은 구습의 폐해를 헤쳐나가고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화를 비롯한 정당체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언론황제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가 정치무대에 성공적으로 등장함으

1) 헌법이 개정된 것은 2001년 10월 7일 국민투표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 개헌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5장에 한정되었다.

로써 유럽 여러 나라들과 이탈리아 개혁세력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는 새 선거법에 따른 총선이 처음 실시된 1994년 전진이탈리아(Forza Italia)를 창당한 지 2개월만에 제1당으로 등장시키는 경이를 연출하면서, 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동맹(Lega Nord)과 네오파시스트인 민족연맹(Alleanza Nazionale)과 연정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연정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중시위와 연정내 분열로 좌초하고 말았다. 그러나 2001년 선거에서 그는 다시 놀라운 득표율을 보이면서 동일한 연정을 구성하기까지 하였다.

제도적 배경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적하고 전진이탈리아의 지지층 성격과 정당정치적 특성을 함께 짚어봄으로써 베를루스코니와 전진이탈리아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전망을 조명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베를루스코니와 전진이탈리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에만 주목하거나 선거분석을 통한 지지기반 분석에 치중하는 양태를 보여 왔다. 전자는 기민당이 사라진 공백에 신생 보수정당인 전진이탈리아가 자리함으로써 새로운 양대 하부문화가 수립되어 간다거나 양대 하부문화 전체가 소멸해 가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후자는 베를루스코니의 인물 효과와 미디어 활용 효과에 치중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 후자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정치사회적 변화의 맥락을 일정하게 도입하고 있는 입장이 자이셀베르크(J. Seisselberg)의 '미디어 매개 인물 정당(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론이다.

그 주장의 요지는 1990년대 이탈리아 사회의 현대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정당 형태가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베를루스코니의 선거전략이나 전진이탈리아의 구조가 미디어를 주요 매개로 하며 특정 인물을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의 일정한 성격과 특정 행위자의 선거전략이 일치했고 또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만으로 그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정당정치론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 글은 정치사회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고려하는 정당정치론의 시각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배경의 측면에서, 1990년대의 변화에 초점을 둔 자이셀베르크와는 달리 1970년대 후반으로 소급되는 가톨릭-보수주의 하부정치문화의 해소과정²⁾과 정치협오증의 확산 및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목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1990년대의 변동이 시작되었고, 해소된 진영의 표들이 그 지각변동 과정에서 신생정당이나 다른 진영의 정당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하부정치문화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가정한다. 정당 지지표들의 이동과정과 전진이탈리아 지지층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분석함으로써 이 가설을 증명할 것이다.

2) 자이셀베르크도 하부정치문화와 관련해서는 가톨릭-보수주의와 사회-공산주의라는 양대 하부정치문화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 주관적 요인으로서 전진이탈리아의 구조적 특징을 베를루스코니의 인물적 측면과 더불어 살펴본다. 전진이탈리아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자이셀베르크의 이론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성격과 연결되는 지점이나 성공 요인으로 설명되는 지점에서는 비판적으로 고찰될 것이며, 그와 함께 전진이탈리아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논증과 연결시켜 독자적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1년 선거를 중심으로 현 연정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 전반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전진이탈리아와 현 연정의 전망을 제시한다.

II. 이탈리아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제도적 변화

1. 가톨릭-보수주의 하부정치문화의 해소와 정당협오증의 확산

이탈리아의 정당체제는 흔히 ‘불완전 양당체제(bipartitismo imperfetto)(Galli, 1967)’ 혹은 ‘극화된 다원주의 체제(polarized pluralism)(Sartori, 1966)’로 표현된다.³⁾ ‘불완전 양당체제’는 기민당(DC)과 공산당(PCI)이 양대 정당으로서 정당체제를 구성하지만 전자가 정부를 독점한 채 연립정당들의 몰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극화된 다원주의 체제’란 의회진입을 위한 봉쇄조항을 규정하지 않은⁴⁾ 순수 비례대표제에 따라 15개 가량의 정당들이 항상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있었으며 이 정당들이 좌우 양극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파르네티(Farneti, 1983)의 ‘구심적 다원주의(pluralismo centripetto)’ 언급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지각변동이 있기까지 반세기 이탈리아 정치사를 지배해온 기민당은 점차 국가정당화되었으며, 제1야당이었던 공산당은 영원한 야당으로 남아야만 했다. 기민당과 공산당의 양극 체제(bipolarismo)는 정권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imperfetto)’ 체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영원한 야당으로 존속했던 공산당도 의회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기민당과 협조하는 등 이탈리아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지주로 기능한 것도 사실이다. ‘가톨릭-공산주의 화해공화국(Katholisch-kommunistische Republik)’이나 ‘합일정권(Konkordanzregime)’ 및 ‘차단된 민주주의(democrazia bloccata)’란 규정은 이러한 측면을 지직한 표현들이다(Braun, 1994: 25-26, 51).

이탈리아 정당정치체제를 보다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당지배체제

3) 이탈리아 정당체제에 관해서는 정병기(2002) 참조.

4) 정당이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6만 내지 6만5천표 이상을 획득하거나 전국에서 30만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이 봉쇄조항은 선거구 크기와 관련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Pasquino, 1995a: 135-136).

(partitocrazia)’라는 개념이다. 파스쿠이노(Pasquino)에 따르면, 정당지배체제란 국민들의 이해에 반해 자신들의 권력을 생산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통제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초권력적·초국가적 정당권력체제(Pasquino, 1995b: 341)이다. 이탈리아의 정당지배체제는 서구의 어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서보다 더 광범위한 정치적 영역에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현상하였다.⁵⁾

그에 따라 정당 지도자들은 정당이나 파벌 혹은 국가 제도를 통해 이른바 ‘정부 속의 정부(sottogoverno)’를 형성해 정부와 사회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 이러한 정당권력체제는 수십년 동안 구축되어온 ‘정치계급(political class)’의 권력구조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구조는 제도들간의 결합을 통해 권력이 재생산되며 후견주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이 매개되고 대변되는 구조이다.⁶⁾ 그에 따라 정당권력체제의 부정이 일상화되고 다양한 파벌과 여러 정당들간 연립이 불가피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양대 정당간 정권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가톨릭의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서구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당이 존재함으로써, 가톨릭-보수주의와 사회-공산주의라는 양대 하부정치문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공산당의 집권 위협이 상존함으로써 인해 기민당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보수주의의 반공블럭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대 하부정치문화는 지역적으로도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 이후 지역주의 정당과 지역간 정당연립의 근거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른바 ‘적색지대’인 중부에는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내지 2배에 달하였으며, 기민당은 북동부의 가톨릭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확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1>과 그림 1을 보면 가톨릭-보수주의와 사회-공산주의라는 양대 하부정치문화를 대표하는 정당들의 득표율과 양대 정당들의 득표율이 1976년을 정점으로 하여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1980년대 후반까지 각각 80%이상과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⁷⁾

5) 이러한 입장에서 시도티(Sidoti, 1993)는 이탈리아 정치사회의 모순을 “직업정치인들로 구성된 정치계급(the political class)”에 의한 “과잉정치화 사회(hyper-politicized society)”라고 표현했다.

6) 이탈리아적 의미의 ‘정치계급’이란 베버의 가치중립적 이상형의 개념인 ‘직업정치인’, 즉 “국가 정책 결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행위자”(Klingemann et al., 1991: 31-32)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책임 있는 직업정치인을 이르는 말로서 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Sidoti, 1993: 339, 341).

7) 가톨릭-보수주의 정당들은 ‘제1공화국’ 당시 기민당, 공화당(PRI), 자유당(PLI)을 의미했으며, ‘제2공화국’에서는 기민당의 후신인 세 정당, 즉 국민당(PPI), 기독교민주센터(CCD), 기독교민주연합(CDU)과 전진이탈리아(FI)를 의미한다. 2001년 선거 이후에는 중도파 연합인 마르게리타(Margherita)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반면 사회-공산주의 정당들은 ‘제1공화국’의 공산당, 사회당(PSD), 사민당(PSDI)과 ‘제2공화국’의 좌파민주당(DS), 재건공산당(PRC), (신)공산당(PdCI)을 말한다. 그리고 양대 정당은 1994년 이전에 기민당과 공산당/좌파민주당이었으며, 1994년부터는 전진이탈리아와 좌파민주당이다.

<표 1> 이탈리아 역대 선거결과: 하원 비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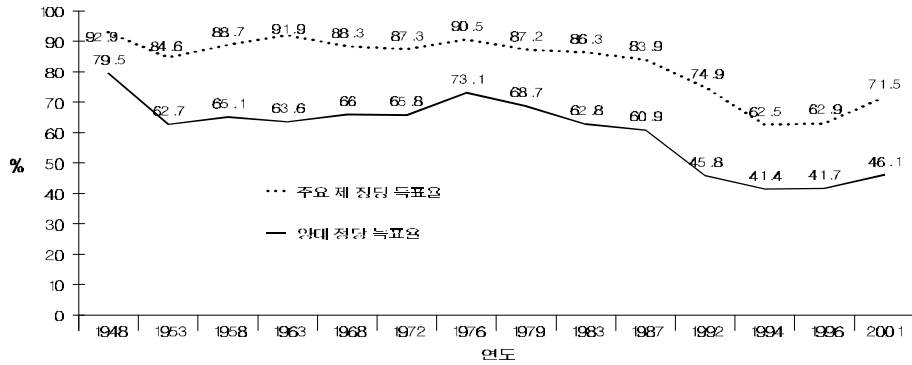
연도	국민당	공산당	사회당	사민당	재건 공산당	공화당	자유당	네오파 시스트	녹색당	북부 동맹	기타
1948	48.5	31.0	7.1	-	2.5	3.8	2.0	-	-	-	5.1
1953	40.1	22.6	12.8	4.5	-	1.6	3.0	5.8	-	-	9.6
1958	42.4	22.7	14.2	4.5	-	1.4	3.5	4.8	-	-	6.5
1963	38.3	25.3	13.8	6.1	-	1.4	7.0	5.1	-	-	3.0
1968	39.1	26.9	14.5	-	2.0	5.8	4.5	-	-	-	7.2
1972	38.7	27.1	9.6	5.1	-	2.9	3.9	8.7	-	-	4.0
1976	38.7	34.4	9.6	3.4	-	3.1	1.3	6.1	-	-	3.4
1979	38.3	30.4	9.8	3.8	-	3.0	1.9	5.3	-	-	7.5
1983	32.9	29.9	11.4	4.1	-	5.1	2.9	6.8	-	-	6.9
1987	34.3	26.6	14.3	2.9	-	3.7	2.1	5.9	2.5	0.5	7.2
1992	29.7	16.1	13.6	2.7	5.6	4.4	2.8	5.4	2.8	8.7	8.2
연도	국민당 Margherita (2001)	좌파 민주당	전진 이탈리아	민족 연맹	녹색연합 Girasole (2001)	기타					
1994	11.1	20.4	2.2	21.0	6.0	-	-	13.5	2.7	8.4	14.7
1996	6.8	21.1	-	20.6	8.6	-	-	15.7	2.5	10.1	14.6
2001	14.5	16.6	-	29.5	5.0	-	-	12.0	2.2	3.9	16.3

자료: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 종합.

주: 1. 국민당: DC, 1993년 해산, 국민당(PPI), 기독교민주센터(CCD), 기독교민주연합(CDU) 등으로 분리.

2. 공산당: PCI, 1991~1997 PDS, 1997년 이후 DS.
3. 재건공산당: PRC, 1991년 공산당 당명개정 때 분리 창당.
4. (신)공산당: PdCI, 1998년 재건공산당에서 분리 창당.
5. 전진이탈리아: Forza Italia, 1994년 창당.
6. 사회당: PSI, 1994년 이후 SI.
7. 사민당: PSDI.
8. 공화당: PRI.
9. 자유당: PLI.
10. 네오파시스트: MSI, 1972년 군주주의자들과 통합, 1994년 이후 민족연맹(Alleanza Nazionale).
11. 녹색당: I Verdi.
12. 녹색연합: Federazione dei Verdi.
13. 북부동맹: 1987년 Lega Lombarda, 1992년 이후 Lega Nord.
14. Margherita(마르게리타): PPI, Democratici, Rinnovamento italiano, UDEUR.
15. Girasole(해바라기): Verdi, SDI.
16. 기타: 1968년 이후 1987년까지 급진당(Radicali)과 프롤레타리아 민주당(DP)이 4~5%를 유지.

그림 1. 양대 정당과 가톨릭-보수정당 및 사회-공산주의 정당 득표율(하원)



주: 1. 주요 제 정당: 기민당, 공화당, 자유당, 국민당, 기독교민주센터, 기독교민주연합, 마르케티타, 전진이탈리아 + 공산당, 사회당, 사민당, 재건공산당, (신)공산당.

2. 양대 정당: 기민당, 전진이탈리아 + 공산당, 좌파민주당.

자료: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 종합.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세속화는 가톨릭-보수주의의 정치문화를 뿌리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두 가지 득표율이 모두 1976년을 고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양대 하부정치문화 모두의 해소가 아니라 이탈리아 국민들의 세속화 추세에 따른 기민당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민당이 꾸준히 약화되는 반면 사회-공산주의 정당들의 득표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공산당과 좌파민주당의 득표율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재건공산당과 사회당 - 사회당의 중도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 의 득표율을 합산할 때는 지속적으로 40%선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1980년대 말에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공산주의의 위협까지 사라지자 가톨릭 정치문화와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기민당의 존재이유도 상실되었다. 곧 동구의 몰락은 이탈리아 좌파의 해체가 아니라 반공블럭의 해체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양대 하부정치문화의 변화는 전체적인 해소가 아니라 가톨릭-보수주의의 일방적인 소멸과 사회-공산주의의 분열로 설명되어야 한다.⁸⁾

8) 이탈리아공산당의 당명개정과 온건화는 동구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탈리아공산당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동구 현실사회주의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길을 걸어 왔으며, 1991년의 당명개정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하부정치문화의 재편은 지지표의 지역적 분포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지역으로서 1970년대 말까지 51%에 이르렀던 북동부 주민들의 기민당 지지율은 1992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27%로 떨어졌다. 반면, 이른바 ‘적색지대’로서 사회-공산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중부에서 기민당 지지율은 증감을 되풀이하였고, 남부에서의 지지율은 점차 높아져 40%에 달했다. 이것은 기민당의 지지기반이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가톨릭-보수주의 정치문화로부터 남부주민들의 후견주의적 투표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낸다(Donovan, 1992: 176; Rhodes, 1993: 110; 정병기, 2000: 407).

<표 2> 기민당 지지율의 남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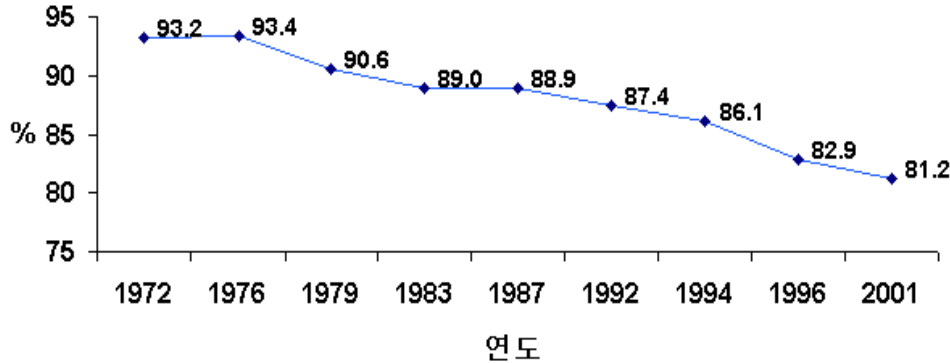
	1979년까지	1980~1989년	1992년
북서부	36	29	24
북동부	51	40	27
중부	33	26	23
남부	36	37	40

자료: Donovan(1992: 176).

주: 북서부는 Valle d'Aosta를 제외한 공업삼각지대.

한편 양대 하부정치문화의 한 축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문화에서도 정당혐오증이 커져가고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1970년대 중반까지 평탄했던 투표참여율이 1970년대 후반과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에는 80%를 간신히 넘고 있어 정당체제의 안정화와 달리 이탈리아 국민 일반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실망이 심각해 감을 엿보게 한다. 세속화와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후반이었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정당혐오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정당혐오증은 중북부 유럽의 그것과 달리 중도통합적 포괄정당(catch-all-party)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의 폐해와 개혁의 실종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환멸의 결과였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정치의 반세기를 점철해 온 구습의 타파가 새로운 정당지형과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더욱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2. 이탈리아 총선 투표참여율(1972~2001)하원(% , 1994년 이후 비례대표)



자료: Hellman and Pasquino(1993), Ignazi and Katz(1995), D'Alimonte and Nelken(1997)의 부록(Appendice documentaria), 기타 내무부 자료 종합.

2. 단순다수대표제의 도입: 인물중심성 강화와 정당연립 강제

이러한 상황에서 헤게모니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정치인들과 기민당 좌파는 세력간 역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성공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간 것은 기민당 좌파에 속한 세니(Segni)가 1991년에 시작해 1992년 탈당과 동시에 독자적 운동체로 성립시킨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Popolari per la Riforma)’이었다. 또한 시칠리아(Sicilia) 주정부소재지 팔레르모(Palermo)의 시장인 오를란도(Orlando)도 1991년 반마피아 운동체인 ‘라 레테(La Rete)’를 조직한 후 이듬해 정당으로 재조직하였다. 오를란도는 특히 1993년 주선거에서 75.2%를 득표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Große and Trautmann, 1997: 35). 기민당과는 다른 입장에서 비례대표제를 고집했던 좌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1993년 이후에는 동참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운동은 명실공히 정파를 초월한 국민운동으로 확대되어 갔고, 결국 1993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확정되었다(82.7%의 찬성).

한편 1992년에 시작된 밀라노 법관들의 ‘깨끗한 손(Mani pulite)’ 운동이 이탈리아 전역과 국가 최고 수위까지 번져나가고 1993년 6월 지역선거에서 북부 지역주의 정당인 북부동맹(Lega Nord)과 시칠리아의 라 레테 등 신생정당들이 약진함에 따라, 기민당 정치인을 비롯한 구 정치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Katz, 1994: 161-162). 그 결과 국회의 논의는 국민투표의 의사를 반영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과도정부(Ciampi를 수반)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과도정부의 지속적 개혁작업에 의한 선거법 개정은 다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상하원 선거제도가 1993년 8월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이탈리아의 전후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고 정당체제의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새로운 선거법은 안정된 다수형성을 통한 정부 통치력의 강화와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표성 증대 및 의원들의 당내 계파 보스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수대표제를 도입하였다(Weber, 1994: 24; Katz, 1994: 162-163). 그러나 정당간 갈등과 타협의 소산으로 탄생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혼합제도였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비율은 각각 75%와 25%이며, 다수대표제 방식은 영국식 1구1인 단순다수제(first-past-the post)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다수대표제를 통해 당내 계파 보스들의 전횡을 막고 국민들에 의한 선택의 여지를 높인다는 다수대표제의 장점이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국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우선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간의 불일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북부동맹이 정당명부 투표에서 8.4%만을 획득하였음에도, 다수대표에서 북부지역을 석권함으로써 인해 약 19%의 의석점유율을 보인 것이 대표적 예이다(Helms, 1997: 91). 또한 새 선거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수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정당간 선거연립을 강제하고 연립체 내에서는 다시 여러 정당들간 혹은 계파들간 역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대표제의 가면에 비례대표제가 숨겨져 있는 현상 혹은 다수대표제 안에 비례대표제적 원칙이 실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1997: 102).

III. 전진이탈리아의 지지층의 성격과 정당정치적 특성

1. 전진이탈리아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데올로기적 위치

전진이탈리아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지지자들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및 지역별 분포를 통해 고찰한다. 그에 덧붙여 과거 어느 정당의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자들이 유입되었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위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⁹⁾

9) 과거 어느 정당의 지지층으로부터 신생정당인 전진이탈리아 지지층이 유입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1994년 총선 자료가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1994년 총선이 전진이탈리아가 최초로 참여한 의회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항들과 관련하여 최근까지의 변동상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 총선의 자료들이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료의 수집이 여의치 않아 여기에서는 1994년 자료에 한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아래 <표 3>은 전진이탈리아 전체 지지층에 대한 각 분류 집단별 구성비에서, 이탈리아 전체 인구에 대한 각 분류 집단별 구성비를 감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진이탈리아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리고 노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높다. 학력 면에서 전진이탈리아 지지율은 중고등 수준의 학력층에서 월등히 높으며, 그 이하나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 한편 직업과 관련해서 보면, 기업가와 가정주부들이 전진이탈리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며, 관리직 노동자와 대학생 및 연금생활자층의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전진이탈리아는 각각 청년층, 중간학력층, 기업가 및 가정주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진이탈리아 지지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징(1994):
전진이탈리아 지지층 구성비 - 이탈리아 인구 구성비

성	남성	-2.8	직업	기업가	+1.4
	여성	+2.8		자영업자	+0.9
연령	18-24	+0.7	보조직	+0.8	
	25-34	+3.2	관리직	-1.5	
	35-44	-0.7	고용노동자	+0.3	
	45-54	+0.7	미취업자	+1.1	
	55-64	0	가정주부	+2.8	
	65이상	-3.7	대학생	-1.8	
학력	초등졸업	-4.4	연금생활자	-4.2	
	중등졸업	+3.7			
	고등졸업	+4.4			
	대학졸업	-3.7			

지역별로 볼 때, 전진이탈리아는 섬을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전국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그리고 북부에서 다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사회-공산주의의 영향이 강한 중부에서는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표 4> 참조).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와 사르데냐의 두 섬에서 전진이탈리아에 대한 지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87년에서 1992년으로 진행해 가는 기민당 지지율과 유사한 현상이다.

<표 4> 1994~2001년 이탈리아 총선 지역별 득표율(%): 비례대표

주요연맹/정당	연도	북부	중부	남부 (반도내)	섬	전국
공산당	1987	26.1	34.3	23.1	21.3	26.6
	1992	15.8	26.9	13.6	12.4	16.1
좌파민주당	1994	14.0	34.4	21.2	17.2	20.4
	1996	18.6	28.6	20.9	17.6	21.1
	2001	15.6	23.2	14.9	11.8	16.6
재건공산당	1992	5.5	8.4	7.3	1.6	5.6
	1994	5.3	8.4	7.1	1.6	6.0
	1996	7.5	11.2	9.0	7.4	8.6
	2001	5.0	6.0	4.9	3.6	5.0
사회당	1987	14.7	12.9	14.8	14.0	14.3
	1992	11.9	12.8	17.8	14.4	13.6
(신)사회당	1994	1.5	2.2	2.8	2.9	2.2
	1996	0.1	0.5	1.1	0.3	0.4
	2001	0.6	1.0	1.5	1.4	1.0
전진이탈리아	1994	24.8	16.8	15.5	30.4	21.0
	1996	20.0	15.7	22.3	29.7	20.6
	2001	29.9	24.3	30.6	35.0	29.5
롬바르디아 동맹	1987	1.0	0	0	0	0.5
	1992	15.6	2.3	0.3	0.2	8.7
북부동맹	1994	19.0	3.4	0	0	8.4
	1996	20.5	0.9	0	0	10.1
	2001	8.2	0.2	0	0	3.9
사회운동당	1992	4.1	4.5	7.6	5.4	5.4
민족연맹	1994	7.4	11.3	22.9	13.5	13.5
	1996	11.0	22.3	19.2	13.5	15.7
	2001	9.1	16.9	14.0	11.5	12.0
기민당	1987	32.0	31.0	40.7	37.6	34.3
	1992	24.0	27.7	39.3	39.3	29.7
국민당	1994	12.3	9.7	11.1	8.6	11.1
중도연합	1996	7.2	6.7	7.3	5.8	6.8
마르케리타	2001	15.1	14.8	13.3	13.8	14.5

주: 1. 북부: Trentino Alto Adige, Friuli Venezia-Giulia, Veneto, Valle d'Aosta, Lombardia, Piemonte, Liguria, Emilia-Romagna.

2. 중부(적색 지대): Toscana, Lazio, Umbria, Marche.

3. 남부(반도): Abruzzo, Molise, Campania, Basilicata, Puglia, Calabria.

4. 섬: Sardegna, Sicilia.

자료: http://cedweb.mininterno.it:8890/main/ind_elez.htm(검색일: 2001. 9. 30); Rhodes(1993: 110); Brand and Mackie(1995: 132); Jung(1999: 177-179).

여기에서 잠시 전진이탈리아의 주요 연립정당들의 득표율 분포를 보면, 적어도 1996년까지는 북부동맹과 민족연맹이 각각 북부와 남부에서 보루를 지키고 있었으며, 민족연맹은 중부지역에서도 득표율을 신장해 가는 한편 두 섬에서도 일정한 지지율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4년 선거와 1996년 선거에서 전진이탈리아가 북부지역에서 북부동맹과, 그리고 중남부 지역에서 민족연맹과 선거연립을 구성했던 사실이 매우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1992년도 다른 정당 지지로부터 1994년도 전진이탈리아 지지로 전환한 유권자들의 비율을 보면 <표 5>와 같다.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북부동맹과 사회당 및 기민당이다. 1992년도 북부동맹 지지자들의 31%가 1994년도에는 전진이탈리아를 선택했으며, 마찬가지로 사회당과 기민당의 지지자들중 각각 27%와 24%가 전진이탈리아를 선택했다. 기민당 지지율이 다른 두 정당에 비해 두세 배 가량 된다고 볼 때, 전진이탈리아의 지지자들 중에는 과거 기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부동맹의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이 과거 기민당 지지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¹⁰⁾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특히 북부지역에서 북부동맹과 경합한다는 것은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전환한 시점에서 양자에게 모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 또한 전진이탈리아로 하여금 북부동맹과의 선거연립을 강제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과거 사회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1960년대 중반이래 사회당이 중도화되어 갔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곧, 사회당 지지층에는 중도적 유권자들과 사회-공산주의 하부정치문화 성향의 유권자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 중도적 유권자들이 전진이탈리아 지지로 이동해 갔다고 볼 수 있다.

<표 5> 1992년도 타 정당 지지자들 중 1994년 전진이탈리아 지지자로 전환한 비율(%)

1992년도 지지 정당	북부동맹	사회당	기민당	사회운동당	새건공산당	좌파민주당
1994년도 전진이탈리아 지지로 전환한 비율	31	27	24	18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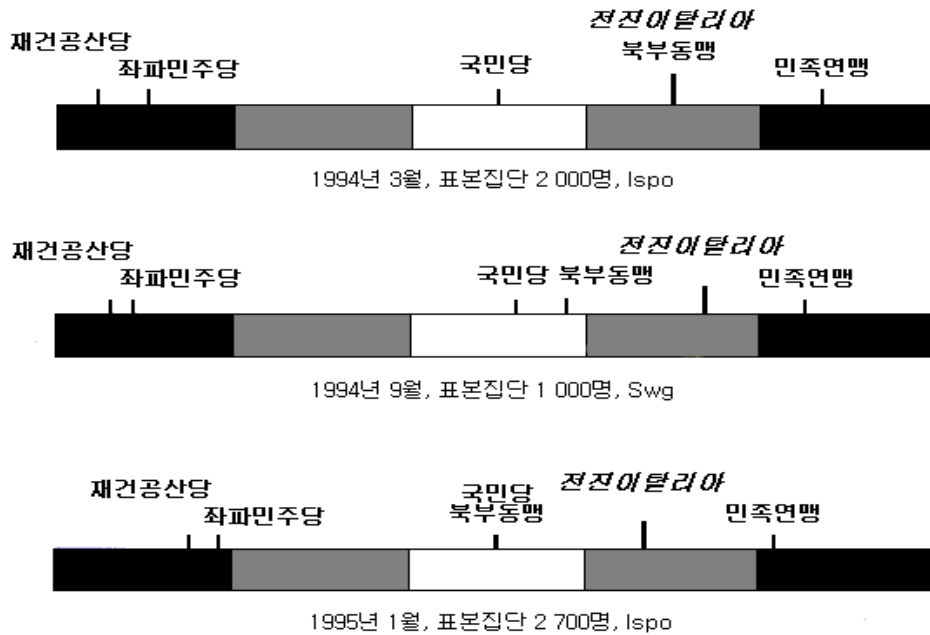
자료: Mannheim(1994: 32).

이와 같은 제반 지지층 분포의 특성들은 전진이탈리아의 이데올로기적 위치와도 관련된다. 과거 기민당의 이데올로기 위치가 중도였으며, 그 뒤를 현재 국민당(PPD)이 잇고 있다. 기민당이 중도정당으로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었다면, 중도 우익의 일부가 북부동맹이나 전진이탈리아의 진영으로 결합한 것이다. 실제 1994년 3월 총선에서 전진이탈리아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식조사(Mannheimer, 1994: 31에서 재인용)를 보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

10) 지역별로 볼 때, 북부에서도 북부동맹당의 지지도 분포는 과거 기민당의 지지도 분포와 유사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Jung(1999) 참조.

이 자신을 중도우파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두 여론조사기구(Ispo, Swg)가 1994년 3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진이탈리아의 지지자들은 중도우파 진영 내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전진이탈리아의 이데올로기 위치



자료: Diamanti(1995: 166).

2. ‘미디어 매개 인물 정당’으로서의 전진이탈리아

자이셀베르크(Seisselberg)의 개념을 따르면, ‘미디어 매개 인물정당(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이란 매스미디어의 매개와 인물의 상징화를 통해 정치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성격으로 자이셀베르크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지적하였다(Seisselberg, 1996: 718):

- ① 고도로 위계화된 의사소통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미디어에 기반한 성공적 정치 매개의 기능적 요소로 봄.
- ② 당의 강령과 전략목표는 조직적 토대인 당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지도부에 의해 위계적으로 결정됨.

- ③ 위계제의 정상에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 위치하며, 이 인물이 곧 지도자로서 당 정책 형성의 중심이 됨.
- ④ 당 지도자가 당 활동의 주요 동기와 조직 행동을 결정함.
- ⑤ 당 내부구조는 지도자의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목표에 조응하여 구성됨.
- ⑥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매개의 성공 여부는 선거에서 득표를 최대화하는 것에 의해 평가됨.
- ⑦ 당 내부조직의 구체적 형태는 당 외부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짜여짐.

한 마디로 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당 지도자의 정치권력 획득의 수단이 되며, 그 구체적 방식은 미디어를 통한 매개에 치중된다는 것이다. 전진이탈리아에 대한 자이켈베르크의 이러한 진단은 대단히 명확한 관찰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전진이탈리아의 당 구조를 보면, 그의 분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진이탈리아의 당수인 베를루스코니는 커다란 전략적 자율성을 누릴 뿐 아니라, 스탈린적 민주집중제에 못지 않은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수의 권한은 지구당 위원장과 중앙위원회(comitato di presidenza) 위원 및 공직출마자 선출위원회(comitati di selezione) 위원의 지명에까지 이르며, 정당명부의 최종 결정도 당수의 권한에 속한다.

그에 따라 모든 당직자의 선출은 낙하산원칙에 의해 중앙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당수의 결정에 귀결된다. 주지구당 이하의 공직자 임명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지구당위원장이 하부위원장들을 지명한다.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는 당원이 아니며, 당원은 단지 위계적으로 조직된 정책공급과 매개전략의 최종지점에 불과하다.

당의 조직은 직접조직과 간접조직의 중간형태를 띠는데, 그 기초단위는 각종 클럽(club)이다. 현재 약 3,500여 개 가량 되는 이 클럽의 임무는 지방 수준에서 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클럽의 장과 행정직은 자체 선거를 통해 총원되지만, 지방수준을 벗어나면 강령이나 지도자선출 등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 클럽의 회원은 지방의 의원이 될 수는 있으나, 당내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전진이탈리아의 구체적 선거전략과 정책형성의 전초에는 ‘사회를 향한 안테나(Antenna on society)’로 불리는 디아크론(Diakron)이 있다(Gilioli, 1994: 31-32). 디아크론은 창당 이전인 1993년에 설립되어 창당준비작업에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창당 이후 현재까지 전진이탈리아의 정치적·사회적 추수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마케팅기구이다. 디아크론은 매일 포커스 그룹을 통해 전화 조사를 하며, 매주 정치시장을 조사하여 베를루스코니에게 보고한다.

디아크론과 같은 기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전진이탈리아의 정치전략은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세일즈(sales) 방식이 공급자가 미리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마케팅(marketing) 방식은 사업의 목표가 표적시장의 수요에 의존해서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마케팅 방식을 정치에 적용하면, 정당이 강령, 후보, 정책을 생산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후 그에 맞추어 정책과 후보 등을 선정하는 것이다. 2001년 선거에서의 5대 공약인 일자리 150만개 창출, 세금감면, 연금인상, 공공근로 확대, 범죄율 감소는 바로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한편, 자이셀베르크는 이러한 정당 형태의 출현이 사회의 현대화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으로서 비단 이탈리아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현대사회는 정도의 차이를 차치하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생활양식의 다원화와 집단주의의 상실로 대표되는 다양화 현상과, 개인이 사회적 단위로부터 이탈하여 원자화되는 개인주의화 현상 및 수요의 개인적 충족이 개인행동의 중심이 되는 소비자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고 한다.

정치에서 미디어에 의한 매개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단순화시키는 회귀경향(regressive)과, 정치적 의사소통과정에서 명명(naming)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name-oriented),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affective)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곧 상징의 정치(Symbolic Politics)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의 정치는 언론황제이자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베를루스코니를 상징화한 이른바 ‘베를루스코니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TV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미친 베를루스코니의 영향력은 그만큼 클 것이다. 실제 1992년도 매일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독일에서 68.1%, 영국에서 78.1%, 그리고 프랑스에서 59.2%이었던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82.1%로 나타났다.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같은 해 독일에서 3.5%, 영국에서 2.7%, 프랑스에서 9.5였는데 비해 이탈리아에서는 2.0%에 불과했다(Seisselberg, 1996: 742(미주 51에서 재인용)).

한편, 자이셀베르크의 논리를 이탈리아의 정당체계에 보다 폭넓게 적용하면,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정당 형태의 요구가 정당화된(legitimate) 기성정당 체제에 흡수된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에 의해 탈정당화된(delegitimate) 기성정당 체제가 사회의 현대화 경향과 충돌함으로써 기성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정당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고 설명된다. 그 충돌의 대표적 현상은 ‘깨끗한 손들(mani pulite)’의 정풍운동과 시칠리아의 반마피아 운동정당(La Rete)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물적 상징화 정치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정치적 조건과 법적·제도적 조건이 언급된다. 1990년대 이후의 양대 하부정치문화의 소멸로 인한 정당충성심 약화와 정당혐오증의 확산이 그 정치적 조건이며, 단순다수대표제 선거의 도입과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법적·제도적 조건이

다. 당내 민주성의 문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못함으로써 전진이탈리아의 당구조에서와 같은 비민주성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단순다수대표제의 도입이 직접출마자들에게 대한 인물적 상징화를 통해 정당의 득표율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다수대표제의 효과를 인물적 상징화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이탈리아 정당체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단순다수대표제도는 비례대표제적 연립상태를 감추고 있다. 전진이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부에서 민족연맹과 연립하고 북부에서 북부동맹과 연립함으로써, 절대다수 지지율에 육박하는 공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양대 하부정치문화의 소멸도 위에서 밝힌 것처럼 1990년대에 비롯된 현상이 아니며 사회-공산주의 진영에 해당되는 현상도 아니다. 하부정치문화의 소멸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세속화에 따른 가톨릭 하부정치문화 — 보수주의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의 소멸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당협오증 또한 중북부 유럽의 그것과 달리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에 대한 심판으로 현상한 것이다. 따라서 세속화된 보수주의 하부정치문화의 표들이 옮겨갈 곳은 좌파 하부정치문화가 아니라, 그 역시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북부동맹과 전진이탈리아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진이탈리아 지지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세속화된 젊은층과 중간학력층 및 가정주부 그리고 남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 사회 현대화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면, 그 현대화에 가장 잘 노출된 중북부 지역과 고학력 및 안정된 노동자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며, 연령 면에서도 청장년층에서 골고루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황제로서의 베를루스코니 효과와 ‘미디어 매개 인물 정당’으로서의 전진이탈리아라는 주관적 요인이 성공의 한가지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 요인이나 유일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

IV. 결론

전진이탈리아의 성공적 정치무대 등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가톨릭 하부정치문화의 소멸과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에 대한 정당협오증의 확산이라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단순다수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조건에서 비롯된 정치적 지각변동의 과정에서 ‘미디어 매개 인물 정당’으로서의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작동함으로써 가능했다. 곧 가톨릭 하부정치문화의 해소와 후견주의 기성정당에 대한 환멸로 기민당 지지자들이 신생정당이자 같은 보수주의 진영인 전진이탈리아와 성공적인 기업인이자 언론 황제인 베를루스코니에게

대거 이동해 왔던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미디어 매개 정당으로서 전진이탈리아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매력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함으로써, TV의 영향에 많이 노출된 층에게 호소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진이탈리아 지지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지역적 분포를 통해 볼 때, 미디어 매개와 인물화 상징을 통한 전략의 영향은 제한된 정도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이탈리아 '제1공화국' 시절에는 좌파정당들과 중도정당들이 구심점이 되었던 반면, '제2공화국'에서는 변동기에 우파와 극우파가 강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중도정당들이 정치무대를 장악해 가고 있다. 앞의 <표 1>에서 나타났듯이, 1994년과 1996년 선거에서 네오파시스트인 민족연맹이 14~15%를 기록했다가 2001년 선거에서는 12%로 후퇴하였으며, 북부지역주의 정당으로서 우익을 점한¹¹⁾ 북부동맹에 대한 지지율도 1996년 10%를 넘었으나 2001년에는 4%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연맹이 탈파시즘에 성공하지 못했듯이,¹²⁾ 북부동맹도 선거에 즈음해서는 분리주의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중도화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도우익 또는 중도에 위치한 전진이탈리아와 새로운 선거연합체인 마르게리타(Margherita)는 각각 약 30%와 15%의 지지율을 얻어 이탈리아 정국을 주도해 가는 듯하다.

결국 '제2공화국' 이탈리아의 정당체제는 가톨릭-보수주의 정치문화가 해소된 공간에 새로운 중도-보수가 등장하면서 중도-보수와 온건-좌파라는 새로운 양대 하부정치문화로 자리잡아 간다고 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중도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북부동맹과 민족연맹도 기존의 중도화 전략을 재개하거나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전진이탈리아 또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적어도 선거공약에 있어서는 중도화 경향을 가속화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1994년 선거를 통해 집권했던 베를루스코니와 전진이탈리아가 집권기

11) 1996년과 2001년 선거를 앞두고 북부동맹은 다시 분리주의와 반이주민 주장을 강화하여 우경화하였다.

12) 민족연맹은 1994년 1월 사회운동당(MSI) 당수 피니(Gianfranco Fini)가 구기민당 우파인물 일부와 무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만든 선거연합체였다가, 1995년 1월 사회운동당이 해산한 후에는 탈파시즘을 추구하면서 사회운동당을 대체하였다. 그에 따라 정통 파시스트들은 삼색기 사회운동당(Movimento Sociale-Fiamma Tricolore)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민족연맹의 강령은 여전히 무솔리니를 간접적으로 20세기 최고의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전통적 조합주의 국가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Brütting, 1997: 1006-1007; Seisselberg, 1995: 228; Bocca, 1995: 216).

13) 반면 1996년 선거결과를 분석한 졸른호퍼(Zohlnhöfer, 1998)는 정당연합 내부에 이질성을 간직한 채 느슨한 양극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2001년도의 새로운 상황을 보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간 동안 과거 정부나 기성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1년이 못되어 실각하고 연이은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듯이, 현 연정 또한 그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 선거의 5대공약은 마케팅 전략의 결과라고 하지만, 대부분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연금인상과 같은 공약은 지킬 의사도 없는 내용으로서 지난 4월 총과업에서 본 바와 같이 역방향으로 치닫고 있기까지 하다. 지난 연정 실패의 경험과 현 연정의 진행과정을 볼 때, 전진이탈리아와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전망은 선거전략 위주의 미디어 매개 정당과 자본의 한 분과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정병기. 2000. 「이탈리아 정치적 지역주의의 생성과 북부동맹당의 변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pp.397-419.
- _____. 2002. 「이탈리아」. 한종수 외. 『현대유럽정치』. 서울: 동성사. pp.111-142.
- Bocca, Giorgio. 1995. *Il filo nero*. Milano: Mondadori.
- Brand, Jack and Thomas Mackie. 1995. “Le elezioni del 1994.” In Piero Ignazi and Richard S. Katz, eds. *Politica in Italia: I fatti dell'anno e le interpretazioni*, edizione 95. Bologna: Il Mulino.
- Braun, Michael. 1994. *Italiens politische Zukunft*. Frankfurt a. M.: Fischer.
- Brütting, Richard, ed. 1997. *Italien-Lexikon*. Berlin: ESV.
- D'Alimonte, Roberto and David Nelken, eds. 1997. *Politica in Italia: I fatti dell'anno e le interpretazioni*, edizione 93. Bologna: Il Mulino.
- Diamanti, Ilvo. 1995. *La Lega: Geografia, storia e sociologia di un soggetto politico, nuova edizione riveduta e ampliata*. Roma: Donzelli.
- Donovan, Mark. 1992. “A Party System in Transformation: The April 1992 Italian Election.” *West European Politics* 15. pp.170-177.
- Farneti, Paolo. 1983. *Il sistema dei partiti in Italia 1946-1979*. Bologna: Il Mulino.
- Galli, Giorgio. 1967. *Il bipartitismo imperfetto. Comunisti e democristiani in Italia*, 2ed. Bologna: Il Mulino.
- Gilioli, Alessandro. 1994. *Forza Italia: La storia, gli uomini, i ministeri*. Bergamo: Ferruccio Arnoldi.
- Große, Ernst Ulrich and Günter Trautmann. 1997. *Italien verstehen*. Darmstadt: Primus.
- Hellman, Stephen and Gianfranco Pasquino, eds. 1993. *Politica in Italia: I fatti dell'anno e le interpretazioni*, edizione 93. Bologna: Il Mulino.
- Helms, Ludger. 1997. “Pluralismus und Regierbarkeit: Eine Bestandsaufnahme der

- italienischen Parteiendemokratie aus Anlaß der Parlamentswahlen 1996." *Zeitschrift für Politik* 44. pp.86-100.
- Ignazi, Piero and Richard S. Katz, eds. 1995. *Politica in Italia: I fatti dell'anno e le interpretazioni*, edizione 95. Bologna: Il Mulino.
- Jung, Byungkee. 1999. "Norditalienischer Leghismo als politischer Regionalismus: Lega Nord im politischen und sozioökonomischen Wandel Italiens." Dissertatio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 Katz, Richard S. 1994. "Le nuove leggi per l'elezione del Parlamento." In Carol Mershon and Gianfranco Pasquino, eds. *Politica in Italia: I fatti dell'anno e le interpretazioni*, edizione 94. Bologna: Il Mulino.
- Klingemann, Hans-Dieter, Richard Stöss and Bernhard Weßels. 1991. "Politische Klasse und politische Institutionen." In Hans-Dieter Klingemann, Richard Stöss and Bernhard Weßels, eds. *Politische Klasse und politische Institutionen: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Elitenforschung*. Opladen and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Mannheimer, Renato. 1994. "Forza Italia." In Ilvo Diamanti and Renato Mannheimer, eds. *Milano a Roma: Guida all'Italia elettorale del 1994*. Roma: Donzelli.
- Pasquino, Gianfranco. 1995(a). "Il sistema e il comportamento elettorale." In Gianfranco Pasquino, ed. *La politica italiana: Dizionario critico 1945-95*. Roma-Bari: Laterza.
- _____. 1995(b). "La partitocrazia." In Gianfranco Pasquino, ed. *La politica italiana: Dizionario critico 1945-95*. Roma-Bari: Laterza.
- Rhodes, Martin. 1993. "Il declino dell' 'onda lunga' e la fine del craxismo." In Stephen Hellman and Gianfranco Pasquino, eds. *Politica in Italia: I fatti dell'anno e le interpretazioni*, edizione 93. Bologna: Il Mulino.
- Sartori, Giovanni. 1966. "European Political Parties: The Case of Polarized Pluralism."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isselberg, Jörg. 1995. "Berlusconis Forza Italia. Wahlerfolg einer Persönlichkeitspartei."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Sonderband zum 25jährigen Bestehen*. pp.204-231.
- _____. 1996. "Conditions of Success and Political Problems of a '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 The Case of Forza Italia." *West European Politics* 19(4). pp.715-743.
- Sidoti, Francesco. 1993. "The Italian Political Class." *Government and Opposition* 28. pp.339-352.
- Weber, Peter. 1994. "Wege aus der Krise: Wahlreform und Referenden in

Itali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 pp.20-27.

_____. 1997. “Die neue Ära der italienischen Mehrheitsdemokratie: Fragliche Stabilität bei fortdauernder Parteizersplitterung.”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8. pp.85-116.

Zohlhöfer, Reimut. 1998. “Die Transformation des italienischen Parteiensystems in den 90er Jahren.” *Zeitschrift für die Politikwissenschaft* 8(4). pp.1371-1396.

http://cedweb.mininterno.it:8890/main/ind_elez.htm(검색일: 2001. 9. 30)

Conditions of Success and Perspective of Forza Italia: Analysis of the Political Change of Italy and the Character of Forza Italia

Jung Byungkee

*Research Fellow of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writing examined the political-social and institutional change of Italy in order to explain objective conditions of success of Forza Italia. It analysed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of its voters, the media-mediated effect of Forza Italia, and the personality effect of Silvio Berlusconi in order to explain subjective conditions of success of Berlusconi's Forza Italia. And thus the perspective of Forza Italia and its coalition government was mentioned.

First, a positive situation for Forza Italia as a non-confessional conservative party was shaped by the fact that above all the catholic political subculture of the catholic-conservative political subculture was dissolved during the process of the secularization since the later half part of the decade 1970. Secondly, the rejection symptom of the Italian people against the clientelistic partitocrazia developed into the party-hatedness and then created a positive effect for the new political partie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the majority election system forced personalized election strategy and coal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Lastly, the reinforcement of the media influence on the Italian people was connected successfully with the personalized symbolization of Berlusconi, and Forza Italia ordered an effective coalition strategy on the regionalized vote distribution of the Italian people.

Regarding the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hat a new cleavage of the political subcultures was arranged like Center-Conservative and Moderate-

Left ones since the later half part of the decade 1990, till the gradual centerization of the Italian voters. Forza Italia would also follow this gradual centerization because of its marketing strategy characteristics.